



# 학생 천 명 '좌우명' 새긴 아흔의 서예가

문화人터뷰 | 현수언 서예가

소암 가르침 받아 서예의 길  
46년 교직 퇴임 후 재능기부  
이중섭 시 '소의 말' 등 휘호  
10년 전부터 초·중 졸업기념  
1300명에 좌우명 족자 선물  
"아이들 기쁨이 저의 기쁨..."  
후배 서예가들 이어갔으면"



10년간 천 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서예로 쓴 좌우명 족자를 선물한 현수언 서예가.

지난 7일 열린 서귀포시 서귀포여자중학교의 제64회 졸업식. 교사가 졸업생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른다. 호명을 받은 졸업생들은 체육관 강당 위에 올라와 졸업장을 받았다. 졸업생이 한명 한명 강당에 올라올 때마다 화면에는 학생 이름·사진과 함께 서예로 쓴 '좌우명 족자(簇子)'가 띄워졌다.

'꿈꾸는 자는 행복하다', '시작하면, 시작된다', '남들이 뭐라하든, 나답게 사는 것이 진짜 자유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한 걸음만 더 걸어라', '우리의 시간이 별이 된다' 등 학생마다 스스로 지은 좌우명은 다양했다. 졸업생 140명의 좌우명을 하나 하나 붓글씨로 쓴 이는 아흔의 서예가 현수언(92) 선생이다.

서귀포 원로 서예가인 그가 서화를 벽에 걸 수 있게 만든 족자

위에 학생들의 좌우명을 써내려 간 지도 10년이 넘어섰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초·중등학생 1300명에게 서예로 쓴 좌우명을 졸업 선물로 줬다.

그가 이 같은 활동을 이어간 건 46년간 교직생활의 영향이 컸다. 교직에 있던 중 1976년 42세에 서예에 입문한 그는 17년간 소암 현중화 선생의 가르침을 받아 서예

공부를 했고, 소암 선생이 던진 '부탁하지 말라'는 교훈에 따라 작가가 되기까지는 22년이 걸렸다. 그 과정에서 그가 든 생각은 '내가 배운 것으로 남을 기쁘게 할 수 없을까'라는 깨달음이었다.

1999년 법환초 교장으로 정년퇴임을 한 후 그는 묵묵히 서예로 재능기부를 이어갔다. 틈나는대로 산방산, 천지연폭포 등 도내 주요 관광지를 찾아 2005년부터 7년간 제

주에 온 신혼부부 1700여 쌍에게 '백년해로'를 기원하는 휘호를 써줬다. 또 2012년부터 5년간 화가 이중섭의 시 '소의 말'을 붓글씨로 써서 나눠줬다. 매년 '입춘' 때는 새해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입춘첩'을 써 곳곳에 나눠주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계속 '학교'에 있었다. 오랫동안 봄담았던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늘 무언가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 그는 졸업을 앞둔 초·중학생들에게 삶의 좌표를 심어줄 좌우명을 서예로 써주는 것을 떠올렸다. 곧장 그의 고향인 남원에 있는 남원중에 직접 찾아가 이를 제안했다. 학교에서 관련 수업을 진행한 뒤 학생들이 정한 좌우명을 받아 그가 족자에 붓글씨로 써주는 방식이었다. 일부는 미리 쓰고, 일부는 학교 현장에

서 직접 휘호해 학생들에게 서예를 눈에 담게 하기도 했다. 남원중을 시작으로 한 '좌우명 쓰기'는 서귀포중, 서귀포중앙초, 법환초, 효돈초, 남원초, 의귀초 등 서귀포시 지역 학교들로 퍼져갔다.

현 서예가는 "처음에는 관심이 없는 학교도 있었지만 점점 이에 관심을 보이는 학교가 생겨났다. 학생들이 스스로 지은 좌우명은 학생들에겐 '스스로'의 약속'이 아닌가. 분명 자꾸 보다보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나이가 있어 현장에서 붓글씨를 쓰는 것이 힘들기도 했지만 학생들에게, 학부모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때 마다 저절로 힘이 생겼다. 아이들이 기뻐하면 바로 그 기쁨이 저의 기쁨"이라고 전했다.

50년 서예의 길을 걸어오고 아흔을 넘긴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배움이 부족하다"고 했다. 그는 "요즘엔 책을 더 많이 읽는다. 나의 지식이 되려면 하루에 10번 이상 읽어야 한다"며 "배움을 지속해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붓을 놓지 않고 싶다. 후회없이 서예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좌우명 쓰기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다"며 "후배 서예가들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도 남겼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서화를 벽에 걸 수 있게 만든 족자

## 제주 숲 반딧불이가 남긴 빛의 궤적

15일까지 유진희 사진전

제주의 숲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빛을 담았다. 이달 15일까지 제주도 문예회관 제1전시실에서 열리는 유진희 작가의 사진전 '빛의 숨결, 숲을 깨우다'이다.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에서 활동하는 작가는 곳자왈 숲을 비롯한 제주의 자연 공간에서 오랜 시간 머물며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생명의 신호를 포착해 사진으로 기록했다.

특히 반딧불이가 어둠 속에서 남기는 빛의 궤적을 중심으로 따라간다. 작가는 그 빛을 설명하게 담아내기 보단 흐릿하고 부드러운 현상으로 표현한다.

전시에선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빛이라는 매개로 풀어낸 작품 59점을 선보인다. 박소정기자



유진희의 '숲속반디'.

영화觀 하나 그리고 둘

## 인생과 영화

'당신의 인생 영화는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살아 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나 큰 영향을 끼친 영화를 묻는 질문 같기도 하고 취향을 탐색하려는 시도 같기도 한데 흔쾌히 한 편의 영화를 골라 타인 앞에 꺼내 놓기가 어렵다. 인생이라는 말이 그렇게 크다. 살아온 날들과 살아갈 날들의 어디쯤 멈춰선 채 대답에 대한 고민은 깊어지고 새로 태어난 영화들은 계속 인생 속으로 뚜벅뚜벅 들어온다. 과연 운명 같은 만남은 이 생에 이뤄질까.



느낀 포만감에 나는 앞으로도 여러 번 '하나 그리고 둘'과 함께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결혼식 장면에서 시작한 영화는 장례식장에서 엔딩을 맞는다. 그 사이 수많은 인물들의 삶이 세월을 타고 흐른다. 막을 수도 없고 막히지도 않는 인간사의 흐름이 이어진다. 그렇게 각각의 인생들이 서두르지 않고 쌓여 끝내 거대한 양감으로 다가온다. 그 부피감의 실체를 전하는 영화의 순간들이 스크린에 자곡자곡 수놓아진다. 인간사의 순환을 정성스레 담아내는 에드워드 양 감독의 조심스러운 손길이 스크린에 포개지는 것 같다.

나는 나로 인생을 살아가며 타인과 마주한다. 나의 세계는 간혹 넓어지기도 하지만 끝내 나로 귀결되는 좁은 통로 안에 머물기도 한다. '하나 그리고 둘' 속 유독 마음에 남는 대사는 '인간이 영화를 발명한 뒤 인간의 수명이 3배 늘었다. 일상을 통해 얻는 경험 말고도 영화를 통해 2배의 삶을 경험하기 때문이다.'라는 대사다. 사랑하는 이들은 언제나 아긋나고 부딪히며 나란히 갈 것이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삶들을 발견해가며, 그렇게 인생을 담은 영화들과 기꺼이 마주하면서 귀중한 인생을 최선의 넓이로 살아낼 것이다.



진명현  
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전문가)

중국 상해 2박3일 매주(토)~(월) 1,190,000원  
노쇼핑, 노음선 ※ 성인기준 4명 이상 출발 ※ 연휴기간(설명절/한국 연휴기간 등) 요금변동

poem tour

TEL. 064-757-4286

## 중국! 맛의 사치!

한식/ 샤브샤브/특급소고기 무제한/옛거리 미식 10선



- 포함사항 : 항공료(제주↔상해), 호텔비(2인1실), 전용차량, 전일정식사(일정표 기재), 현지가이드비, 여행자보험  
- 불포함사항 : 개인 비용 및 싱글차지